

# 미중·한일 무역 악재 겹쳐 주가 폭락

### 코스피 51.15P 하락·3년 만 최저 수준...환율 1200원 넘어 코스닥 7%↓·12년 만 최대치 낙폭...5분간 사이드카 발동도

국내 주식시장이 5일 '검은 월요일'을 마쳤다.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고 일본이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지난 2일 2000선이 무너진 코스피는 하락폭을 더 키웠고, 코스닥은 600선이 무너졌다. 증시 급락과 함께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7위안선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은 단 하루 만에 17원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0포인트(0.61%) 내린 1985.93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945.39까지 하락하는 등 악재 흐름을 이었다. 이날 증가는 2016년 6월28일(1936.22) 이후 3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142억원, 4420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734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이날 7%대 급락해 장중 600선을 내렸다.

코스닥이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10일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지수는 1.01포인트(0.16%) 내린 614.69로 시작해 전장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는 지수가 장중 6%대까지 급락하자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

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다.

발동 당시 선물가격은 836.60으로 전 거래일 증가(892.50) 대비 6.26%(-55.90포인트) 하락했고 현물지수인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증가(903.08)보다 6.63%(-59.94포인트) 내린 843.14를 가리켰다. 장중 저점 기준으로는 2016년 12월9일(585.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72억원어치를 순매도하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236억원, 10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15.3원에 거래됐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장중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11일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 급등은 지난 2일 한일, 미중 간 경제갈등이 연쇄적으로 고조된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를

낮추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상황에서, 환율을 추가로 자극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손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중 무역 전쟁 확전으로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2.6%에서 0.2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46.98 (-51.15) ↓ 금리(국고채 3년) 1.17 (-0.09)
- ↓ 코스닥 569.79 (-45.91) ↑ 환율(USD) 1215.30 (+17.30)

## 광주은행, 상반기 당기순이익 916억원 달성

### 광주형일자리 출자 지원 등 지역 상생 경영 추진 결과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2019년 상반기 당기순이익(공시기준) 916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분기 당기순이익은 463억원으로 각각 전분기(452억원)대비 2.3%, 전년동기(456억원)대비 1.5% 증가했다. NIM(순이자마진·금융기관의 자산단위당 이익률) 2.47%, 고정이여신비용율 0.53%, 연체비용율 0.46%로 은행권 최고수준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송중욱 은행장

이러한 성과는 고객중심 경영정책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니즈에 맞춘 상품(여형스케치적금, 하먼데이적금, 머니파킹통장,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동반성장 특별자금대출 등) 출시와 함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 직인 아이디어 공모전, 영업점 신설 및 재배치 등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부 혁신활동을 끊임없이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형일자리 출자 지원, 광주FC 및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후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주상생카드 활성화 동참, 무더위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지역민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토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지역민과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광주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하반기 광주·전남 지역영업 강화를 위한 점포신설과 포용금융센터 신설 등 서민금융을 비롯한 포용금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광주은행이 할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쌀 '풍광수도' 수도권 대형 매장 입점

### 양파 증정 등 판촉 행사

전남 쌀 공동 브랜드 '풍광수도'가 수도권 대형 매장 3곳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전남도·미곡종합처리장(RPC)과 함께 4·5일 서울시 도봉구 농협강동유동센터와 고양시 삼송신도시 농협삼송유동센터에서 '풍광수도' 판촉 행사를 벌였다.

'풍광수도'는 지난 달 15일 농협수원유동센터에 납품된 뒤 지난 1일 장동·삼송유동센터에 잇따라 입점했다. 전남본부 등은 '풍광수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양파 3kg 증정 행사 등을 펼치고 있다.

'풍광수도'는 흡소핑 방송·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전남도와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풍광수도' 쌀의 수도권 진출을 기념해 8월 한 달 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양파 3kg 증정 행사를 펼친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70세 이상 어르신도 스마트하게...스마트폰 보유율 5년 새 10배 ↑

### 37.8% 사용...60대도 80.3% 4배 늘어

70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년 만에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스마트폰 보유율은 89.4%에 달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광주·전남북·제주 493명 등 4291명을 설문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8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만 13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지난 2013년 68.8%에서 지난해 89.4%로 크게 늘었는데, 이중 고연령층의 보유율 증가가 눈에 띄었다.

60대 보유율은 5년 새 19.0%→80.3%로 4배, 70대는 3.6%→37.8%로 10배 정도 뛰었다.

50대도 51.3%에서 95.5%로, 40대

81.3%에서 98.4%, 30대 94.2%에서 98.7%로 각각 높아졌다.

전체 연령 평균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3년 68.8%에서 89.4%로 20.6%포인트 증가했다.

TV 시청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 보유율이 96.5%로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인 TV의 하루평균 시청시간은

2013년 3시간 14분에서 2018년 2시간 47분으로 27분 줄었다.

연령별 감소시간을 보면 20대가 1시간 4분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30대 42분, 10대 41분, 50대 28분, 40대 26분, 60대 21분 등 순이었다.

반면 70대 이상의 하루평균 시청시간은 254분에서 259분으로 5분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 공공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4%로 세계 1위로 나타났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대학생·취준생 4명중 1명 "공무원 준비"

### 잡코리아·알바몬 설문조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4명 가운데 1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취업정보사이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최근 취업준비생 10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4.7%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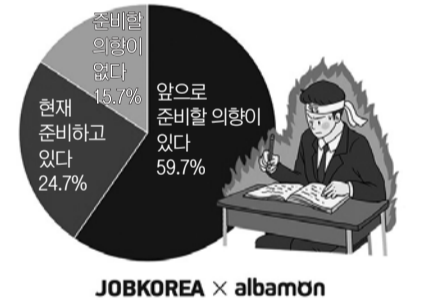
또 '앞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59.7%에 달했으며, 공무원 시험을 볼 뜻이 없다는 응답자는 15.7%에 그쳤다.

시험별로는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응시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가 57.3%로 가장 많았고, 7급 공무원(21.2%)과 소방·경찰 공무원(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정

### 대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 현황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1,022명 대상 조사. 자료: 잡코리아·알바몬



년 보장'이 69.7%(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고 ▲노후 연금(37.9%) ▲복지제도 및 근무환경(21.1%) ▲다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12.6%)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기 때문'이라고 답한 자는 12.2%에 그쳤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